

희망의 이름, 스타트업

‘스타트업 컴퍼니’라는 말은 본디 세계적 혁신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 왔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특별한 수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 기업을 이르던 용어가 스타트업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일반적인 소자본 창업과 구분되는 지점은 따라서 ‘혁신성’의 유무에 있다. 곳곳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소비자들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지극히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솔루션’이야말로 스타트업을 스타트업답게 하는 근간인 것이다. 스타트업의 또 다른 핵심적 아이덴티티는 ‘확장과 성공’을 지상과제로 삼는다는 데 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작은 기업이 성공을 외칠 때에는 말의 무게감마저 다르다. 그러므로 취재와 인터뷰를 위한 짧은 만남의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치열하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째 자질을 물을 때 그들이 입을 모아 ‘목표의식’을 언급한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각광받는 이유는, 성공한 극소수의 스타트업이 각 산업계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스타트업

은 전체의 5% 미만이지만, 그 5%는 95%를 완전히 일신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빌리티 업계에 파란을 불러온 우버를 떠올려보자. 세계의 운수산업은 이제 우버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크게 변화했다.

미국 내수시장에서만 사업을 벌였던 비디오 대여업체 넷플릭스 역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새로 태어난 뒤 전 세계 영상업계의 운곽을 그리는 절대강자가 됐다. 마찬가지로, ICT 기술과의 만남을 통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콘텐츠 업계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다음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힘든 스타트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된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펼쳐질 미래는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때문이다. 창업 시장의 거친 세파를 헤쳐온 이들의 지난 자취를 보며, 스타트업의 치열한 전장을 맨몸으로 돌파하려는 새로운 투자들에 응원을 보내게 된다. ①